

# 민주 “경제 위기 극복 위해 힘 실어달라”

### 총선 ‘코로나 극복’ 메시지 전면에…일꾼 이미지 부각 ‘정부 심판론’ 영향 제한적 판단…경제 대응 여론은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핵심 메시지로 내세우고 있다. 전 세계적 확산 추세를 보이는 코로나19의 방역과 경제 위기에 정부가 안정적으로 대처하려면 유권자들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호소하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은 검사·확진·격리 치료 모든 단계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지난 1일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며 “방역 성공론”을 함께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코로나 전염을 무사히 완수하고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현 정부에 힘을 좀 더 모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선의 의미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위기 극복에 주력하도록 연료를 채워주는 ‘중간 급유’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선거 슬로건도 ‘국민을 지키는 더불어민주당’과 ‘코로나 전쟁 반드시 승리합니다’로 정한 상태다. 전국을 돌아다니는 선거 유세버스에도 ‘국민을 지키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새겨 넣었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 임기 2년을 남겨두고 치러지는 만큼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갖고 있지만, 코로나 정국에서 야당이 제기하는 정부 심판론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자체 분석이다.

이근형 위원장은 “보통 심판론을 야당에서 제기하지만 그런 분위기로 흐르는 것 같지는 않다”며 “정부 심판 못지않게 야당 심판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우세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치권의 ‘정쟁’이 아닌 ‘협력’을 강조하며 ‘일꾼’ 이미지 부각에도 주력하고 있다. 코로나 대응 의지를 강조한 동시에 통합당의 각종 정치 공세를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낙연 위원장은 지난 3일 강원도를 찾아 “지금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종로 유세 현장에서 방역 현장의 의료진과 군 장병,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건물주, 국내 중소기업의 진단키트 개발

등을 언급하며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추켜세운 뒤 “올해 노벨의학상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는 것이 어떻겠냐”라고도 말했다.

민주당의 ‘코로나19 극복’ 전선에도 변수는 있다. 앞으로 선거까지 국내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안정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여론이 정부·여당에 불리하게 형성될 수 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경제 대응책에 대한 여론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될지도 관건이다. /연합뉴스



“민주당 들러리유세단, 전국을 갑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유세본부 들러리유세단 이석현 단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들러리 유세단은 이날 오후 경기 안산 단원을 김남국 후보 지원 유세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후보 지원에 나선다. /연합뉴스

## 호남선 타는 미래한국당

### 오늘 오전 광주 5·18 묘지 참배…오후엔 전북서 거리 유세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7일 호남행에 나선다.

미래한국당은 6일 “원유철 당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와 호남, 대구·경북 출신 비례대표 후보들이 ‘호남행 국민통합열차’를 타고 내려가 영·호남 화합과 지역주의 극복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들의 출발 인사에 참석할지 여부를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미래한국당이 호남권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미래한국당이 호남행에 나선 것은 호남에도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 10%안팎이 있고, 영호남 국민통합을 강조하겠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오전 용산역에서 KTX 열차를 타는 이들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성한 뒤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앞에서 거리 유세를 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 익산역 광장 앞 거리 유세가 예정됐다.

원 대표와 동행하는 비례대표 후보는 정운천 당 국민통합단장과 이종성, 조수진, 전주혜, 이용 후보 등 호남 출신 5명, 한무경, 조명희 후보 등 대구·경북 출신 2명 등 7명이다. 6일부터 자전거를 타고 국토중단을 하는 남영호 후보 역시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 합류한다고 미래한국당은 전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전남 투표소 1530곳 확정

### 이번주 금·토 사전 투표…선관위 홈페이지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투표소 1530곳을 확정했다.

6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 사전투표소 95곳·투표소 369곳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 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사전투표소 95곳 중 90곳(94.74%), 투표소 369곳 중 368곳(99.7%)의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투표소 864곳과 사전투표소 297곳 등 총 1161곳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는 모두 87만 5810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보냈고, 거소투표신고자 6514

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소 864곳과 사전투표소 297곳 등 총 1161곳의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있는 곳에 설치했다. 다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지정 등의 사유로 일부 투표소는 변경됐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6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와 포털사이트에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제공해 유권자들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 접속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본인의 투표소와 약도를 확인할 수 있다. /오광록·김형호 기자 kroh@

## 총선 라운지

### 양향자 “노동자 권익 보호·노동 존중 사회 최선”

#### 서구를 후보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후보는 6일 “한국노총 공공연맹이 저를 지지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노총은 황 위원장과 함께 공공연맹 김일정 사무처장, 서정우 홍보실장, 농어촌공사 노동조합 박종석 위원장,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 가영진 대외협력부위원장, 이종인 광주본부장, 손두희 광주사무국장 등 조합원 10여명이 선



거사무소를 찾았다. 양 후보는 “민주당 광주광역시 후보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가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천정배, 독거 어르신에 생필품 전달 봉사

#### 서구를 후보

민생당 천정배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후보는 6일 상무2동 쌍촌시영종합사회복지관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천 후보는 “코로나19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있는지 더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5일에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경제 위기에 대



응할 ‘워 룸(war room)’을 설치하고, ‘5대 비상경제대책’ 등 대안을 제시하며 즉각 실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천 후보는 SNS에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로하는 ‘4월의 크리스마스’를 공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박지원 “대학 등록금 인하해 차액 보전해줘야”

#### 목포시 후보

민생당 박지원 목포시 국회의원 후보는 6일 “대학교 개강을 앞두고 인터넷 강의로 대체하는 만큼 사이버대나 방송통신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하해 환불해 주고, 차액은 국가가 대학에 보전해줘야”고 제안했다.

박 후보는 “한 학기 대학등록금이 국립대는 평균 208만원, 사립대는 평균 373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데, 만약 대면수업 대신 인터넷 강의로 대체하면



강의의 질이 떨어져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게 된다”며 “인터넷 강의를 위주로 하는 사이버대(18학점 기준 평균 144만원)나 방송통신대(38만원)를 기준으로 등록금을 환불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에 대학재정보조금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김형호 기자 khh@

### 윤소하 “목포대 의대 유치 흔들지 말아야”

#### 목포시 후보

정의당 윤소하 목포시 국회의원 후보는 6일 “목포대 의대·대학병원 설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목포대 의대를 흔들지 말아달라, 목포대 의대 유치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윤 후보는 “저는 지난 4년간 목포대의대 설립의 끝을 맺자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해왔다. 연구용역이 잘 끝났고, 의대 설립은 구체적인 현실이 됐다”고 밝힌 후 “그런데 한 정치인의 경솔한 행동과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또 다른 정치인에 의해 목포대의대 설립이 선거 정쟁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민주당 전남도당은 목포대의대 설립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 김원이 후보는 순천대의대 추진 행사장에 경솔하게 참여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 광주 전남 전북

# 200베드 이상 요양병원 매도·매수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